

〈도서정가제 입법 촉구 및 서점·출판인 결의대회〉 열려·외

〈도서정가제 입법 촉구 및 서점·출판인 결의대회〉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 주최로 열렸다. 전국에서 1천여명의 서점·출판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서정가제는 적절한 마진으로 출판·서점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도서정가제의 입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독자층의 문화적 불균형과 할인경쟁 때문에 서점의 폐업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잡지협회의 노영현 회장도 “도서정가제 폐지는 서점·출판계에 제2의 IMF를 몰고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서정가제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도서정가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도서정가제 유지에 따른 입장’이 전국 서점인 및 출판 관련산업 종사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또한 정부당국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상품인 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률적인 경쟁논리를 재고해줄 것, 정보통신

부는 도서정가제가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수정할 것, 문화관광부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 정부는 지식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서정가제를 입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전국의 서점인이 자정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국사이버출판대학 개교

청솔텔레콤(대표이사 손중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이버출판대학(www.publishing21.com)이 10월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실험학기 강좌는 무료며, 강좌는 기초과정·기획과정·편집과정·제작과정·마케팅과정으로 나뉘어 총 16과목이 개설됐다. 청솔텔레콤은 지난 11월 8일 〈한국 출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사이버출판대학 개교 기념 세미나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지훈상 제정

시인이자 국학자인 조지훈을 기리는 〈지훈상〉 제정 발기인 모임이 발족했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등 4명이 참여하는 발기인 모임은 내년 5월 〈지훈문학상〉과 〈지훈국학상〉 두 부문으로 나뉘

첫 시상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행물위원회, 〈11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11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과경과 광경》(김정환, 푸른숲),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강만길 외, 역사비평사), 《개인의 동일성과 불멸성에 관한 대화》(존 페리, 김영정 외, 철학과현실사),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이해영, 푸른숲), 《모방에서 혁신으로》(김인수, 임윤철 외, 시그마인사이트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토머스 L. 프리드먼, 신동욱, 창해), 《중국의 과학과 문명》(조셉 니덤, 이면우, 까치글방), 《소호에서 만나는 현대 미술의 거장들》(강은영, 문학고지성사), 《길에서 살고 길에서 죽다》(한수산, 생활성서), 《아버지를 찾아서》(정하섭, 창작과비평사) 등이다.

⇒ www.kpec.or.kr

호글 · 페이지메이커 · IBM 하리꼬미 분판전문출력



IBM출력의 최고봉—
삼화전산

<http://samhwa.gazio.com>

sawh@thrune.com

천리안 sawh or 삼화

Tel : 02)2263-2651(대)

Fax : 02)2263-2653

· 호글위디안 / IBM 전종 완벽 지원!

호글97, 위디안, 페이지메이커, 코렐, 포토샵, MS오피스, 퍼블리셔, 아크로벳(PDF), 맥

· 4도·2도 분판, 단도, 하리꼬미 서비스

· 홈:// 삼화 째 가지오 닷 컵 오픈!

출력 · S/W · 출판 상담 환영

